

충북 발달장애인 노린 사기 증가세

인지능력 취약성 악용 임금편취·명의도용 빈번
폭행·중노동·기초수급비 갈취 등 수법도 다양
전수조사·전담사법경찰관 도입 등 보호책 시급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축사노예 사건으로 전국을 들쭉날쭉 했던 만덕이 사건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을 8년간 일을 시키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에 실형이 선고된 고산의 배추노예사건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임금편취와 명의 도용 건으로 모 증권방송 프로그램인 금금천 이야기

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청주지법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알려진 것이다.

법은 공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결국 피해 상황을 정선연씨가 3세에서 5세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검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동석 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문제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될 소

가 높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착취나 사기사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증명과 같은 자기 방어권이 떨어짐으로써 사기 사건에 이용당하더라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담근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결과에 따라 세금을 다 부과 받게 되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채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4회 우민상 수상자. 왼쪽부터 조승, 임동혁, 장덕수 이사장, 이대범, 임동현씨.

임동혁 이대범 임동현 조승씨 제4회 우민상 4명 수상

상금 500만원에 해외연수 특 전 사회복지부문도 6명 수상

재단법인 우민재단은 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우민상 장학생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제천산업고 임동혁(3년), 미래영재부문 충북반도체고 이대범(3년), 사회복지부문(사)정경리 대표 임동현, 문화예술부문 조승

씨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졌다.

모범사회복지 부문에는 이동섭(충북공무원리체육관 사회복지사), 홍미경(직지드림플러스 사무국장), 오정애(광화원 생활팀장), 송은주(청주정신건강센터 팀장), 한진국(청원

재활원 생활지도원), 정민지(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총 6명이 수상했다.

우민상은 각 분야에서 미래인재와 모범 시민을 선정한 시상하고 학력 우수학생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민재단은 올해 상반기 우민상, 우민장학금, 복지지원금, 아트센터기획전시, 문화예술사업 등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충북교육청 학생복지 예산 올해도 ↑

작년 17억에서 올 21억으로... 현장학습비 10만~30만원 지급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복지 관련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8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2015년 16억6천600만원에서 지난해 17억1천500만원, 올해 21억 900만원으로 늘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이나 야외수련활동 비용으로 초등학교생에게 10만원, 중학생 11만원, 고등학교생 3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는 교육구매비도 지원돼 2015년 1천794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6년 1천817명, 올해 2천 340명이 교육구매 혜택을 받았다.

예산도 같은 기간 3억7천200만원, 3억9천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5억3천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 고교생에게 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 사업으로 총 2만6천231명에게 교과서 구매비 14억9천400만원이 지급됐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학생 등에게 이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매년 확대 추진되고 있다.

2015년 66개 학교에 27억9천300만원이 지원됐고, 2016년 예산을 33억5천5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지원 대상 학교를 96개로 늘리면서 예산도 37억6천700만원으로 증액했다.

충북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전국 톱'

작년 2만 353명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평가서 장관상 수상

충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27일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충북도를 비롯한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우암시니어클럽 청원시니어클럽 제천시니어클럽 등 7개 기관이 각각 대상 및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 1,396개 기관(광역 17, 기초 226, 수행기관 1,153)을 대상으로 50개 기관을 선정할 결과 충북도에서 무려 7개 기관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노인복지전국 충북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충북도는 사상 최초로 노인일자리 2만 353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분야에서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27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와 연계하여 2,08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9988 행복키키미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호경쟁 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8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413명이 늘어난 18,686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할 예정이다.



보은군수, 충청북도 및 시군사회복지협의회장이 현판식을 진행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병준) 및 보은군기초포드뱅크가 20일 보은군 보은읍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은 정상형 보은군수, 충청북도 및 시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활기

현재 130개 기관서 1050명 일자리 창출 등 37개 서비스 제공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복지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 기획하는 수요자 중심사업으로서 현재 도내에서는 130개 기관에서 37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발달서비스(미술·음악

치료 등), 아동청소년 역사탐험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 노인 이용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는 물론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각 지역과 계층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제천의 한방과 접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어르신 한방 건강지원서비스, 보은의 농촌지역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

기 위한 농촌지역 장애인의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 청주시의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게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건강증진 서비스 등이다.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교육과 컨설팅,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 신규 제공기관 교육,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기관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는 작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만5000여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050개의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식

충청북도 2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9988행복키키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다짐하는 노인학

대, 이제그만!,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사회복지법인 한진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노인학대예방 다짐선서 및 세레모니노

인학대, 이제그만!), 나눔 연극단 공연, 부메랑, 키톤 전시회 등 노인 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2015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통해 마련되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개인별 지원계획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정보 제공·서비스연계를 통한 맞춤형생활계획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은? 장애등록이 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 등록 발달 장애인 보호자, 사회복지자전담 공무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주민센터),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지원절차는?

권리구제사업

권리구제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현장조사·현장방문,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시 행사·사법절차 지원

신고 후 처리절차

➤ 신고방법
- 권리구제 대표번호 ☎ 1522-2882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3)716-2160
- 경찰신고 ☎ 112

➤ 처리절차
- 전화상담
- 현장방문 및 조사
- 보호조치
- 형사사법절차 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 행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절차

- 1 공공후견서비스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2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
- 3 후견인후보자 선정 | 시·군·구청
- 4 후견심판 청구준비 | 시·군·구청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5 후견심판 청구 | 시·군·구청
- 6 후견심판 | 관할가정법원 등

단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풍성'

7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단양군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단양군이 후원하는 이 주간에는 어린이 직업체험, 기념식,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요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날인 1일에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열리는 '워커홀릭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직업체험여행'가 마련된다.

이 행사는 2002년 2014년생 자녀를 둔 단양군민 선착순 20팀에게만 참가자격을 준다.

우선 다음달 4일에는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가 치러진다. 기념식에서는 남녀평등헌장 낭독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이 이어진다.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는 양성평

등 OX퀴즈와 남녀가 함께 하는 6인 7각 달리기, 8인 협동 공 튀기기 등의 다양한 화합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아빠와 함께 세프 도전하기'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양성평등주간에 열리는 이 행사는 아빠와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30개 팀이 준비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세프에 도전하게 된다.

입상한 5팀에게는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4등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이밖에 이날 가족친화 캠페인, 성

회통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행사에는 부모와 자녀, 여성과 남성 등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 도모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양군과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매해 양성평등주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로움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빛낸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한자리에'

수상자 70명 초청간담회 개최

충청북도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초청간담회가 5월 31일 수상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충북발전에 기여한 공이 혁혁하신 분들께 드리는 충청북도 최고 권위의 영예로운 상이다.

1959년 충청북도 문화상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충청북도 청소년대상과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을 시상했으며, 1993년에는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을 시상하였다.

그러다 1996년에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를 만들면서 충청북도 도민대상으로 일원화 되었고, 중단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16회에 걸쳐 총 94명이 도민 대상을 수상하였고 현재는 지역사회, 문화체



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도민대상 수상자들은 수상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의 홍보 활동 등 도정 여러 분야에서 충북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지사는 지금의 빛나는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애써주신 역대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북의 위상을 높이 세우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분들 덕분에 최근

충북이 떠오르는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참석한 수상자들은 충북이 영웅호 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대도약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청주시, 고령자친화기업 3년 연속 선정

올해 시니어탑클린 백세할머니밥상 2개소

청주시가 2017년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고친기업으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2015년 우암시니어클럽의 ㈜할머니손맛, 2016년 ㈜돈앤오리의 ㈜도란푸드에 이어 2017년 청주

시니어클럽 시니어탑클린과 청원시니어클럽 백세할머니밥상 등 2개소가 고친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등 5개 평가 항목으로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에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중앙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시니어탑클린은 청주 소용역 업무로 36명이 연매출 2억 원, 백세할머니밥상은 10명이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건강밥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을 올려 민간시장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고친기업 설립일정은 고친기업 주

식회사 설립, 국비신청, 사업장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청주시 고령자친화기업 3호점이 탄생하게 된다.

이번 선정된 고친기업 청주시니어클럽은 국비 3억원, 청원시니어클럽 국비 2억원씩 지원되며, 시 대응 투자비 7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사실 고친기업이 설립되면 정부지원 없이 민간과 똑같이 경쟁하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며 노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 민간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증평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과산경찰서 청주고용센터 대한적십자증평지구협의회 한 국가유충연맹증평군지회 토지주택공사 충북하나센터 등 관련 단

체 위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 관 단체들과의 연계협력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김선호 부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



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군에는 현재 3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진천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확대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진천군이 가스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타이머콕은 사용시간을 설

정해 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고령자의 가스레인지 사용 중 망각에 의한 과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급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기

초연금수급자이며, 진천군은 자체사업으로 올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무상 설치한다.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은 가스타이머콕 보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가구에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단양군 행복학습센터 등 2건 선정

단양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2개 분야가 뽑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번 공모에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통한 단양 인구 더하기와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선정됐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8천150만원(평생학습도시 특성화 5천만원, 읍 면 행복학습센터 3천150만원)을 받는

따라서 사업비 1억4천750만원(군비 6천600만원 포함)을 들여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통한 단양 인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꿈 드림(DREAM) 콘서트를 비롯해 단양 락앤락(樂&樂)운동, 단양스토리 전래놀이 활동가 양성 등 9개 분야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래놀이 활동가, 드문교육 지도, 식생활 강사, edu-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수료생은 취업도가

능하다.

8곳의 읍 면 행복학습센터는 소백산 힐링 밭상, 월악산 약초차 등 14~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9월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커리큘럼으로 과정당 10~45시간 진행한다.

센터는 2006년 개관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단양을 슬로건으로 문화예술, 직업능력 분야에 매년 2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대표 장순화)는 2일 성평등과 헌법,정정과 대한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의 기본 틀인 헌법이 여성

헌법으로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 흐름을 반영한 이번 토론회는 민경자 충북생활정치연대 운영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이 성평등 헌법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김배철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인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대표, 하숙자 청주 여성의 전화 대표, 황경선 충북여

성정책포럼 전 정치분과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설문식 정무부지사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뜻 깊은 행사로서 헌법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 관련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1. 대 상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사업기간

- 2016. 8. 1 ~ 2017. 7.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4. 내 용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	17명	8명	30명	10명

▶ 신청 및 문의_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 후원_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돌봄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배 '↑' 한도도 '↑'

국정위, 내년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경력단절 여성 예방 대책 발표 '눈길'

국공립 어린이집도 2배 늘려 경제활동 지장 안취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 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15 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임금 중위값의 % 미

만) 비중은 37.8%로 OECD 비교 가능한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이어지며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이전보다 질이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더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517억원

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도 늘린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

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세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 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 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 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고,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2021년엔 30만 원 국민·기초연금 연계 폐지도 검토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20만6050원에서 내년엔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명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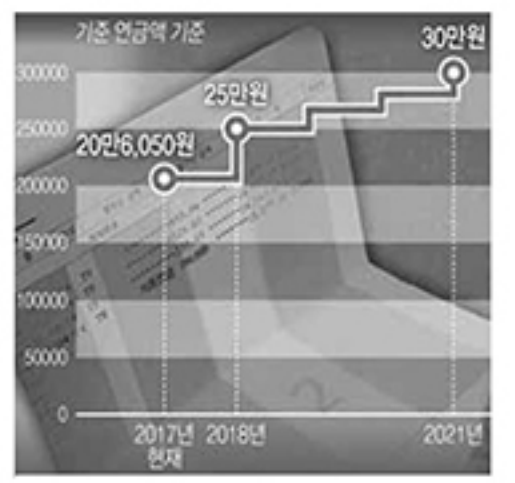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것으로 소득하위 70%의 65세이상 노인에게 10만원 지급하던 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 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도록 함으로써 큰 반발을 샀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수준 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덜 받는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깎여지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44.7%(2015년)로 높은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약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삭감에 대한 불만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담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 폐지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년 기초연금 인상 추진과 동행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슬픔 함께 나뉘요'...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가동

치매센터 확대·전담인력 지원 등 하반기부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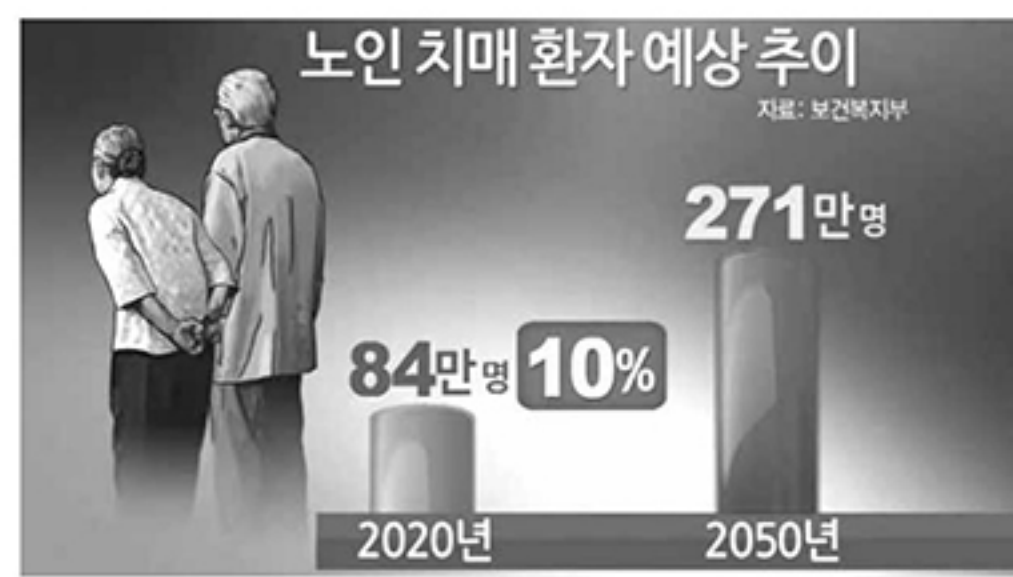
환자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을 축으로 하반기부터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전담 인력이 1 2명에 불과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사업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47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재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 등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47곳 중 25곳이 서울에 몰려있고 경기도 인천 각 5곳, 대구 4곳, 전북 3곳, 울산 2곳, 부산과 세종, 충남이 각각 1곳으로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부터 교육, 조기 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

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는다.

"대출·카드대금 등 연체정보로 복지대상자 발굴해요"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가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22일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신용정보

원에 등록된 2년 동안의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사회취약 계층의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개정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규칙은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로 정했다. 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가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정보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 기준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월 말기환자 호스피스 확대시행 앞두고... 대형병원 '외면'

전국 16곳만 인프라 갖춰 난감

오는 8월부터 말기환자 호스피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앞으로 말기 암환자 외에도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이즈 단 성 폐

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 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질환 말기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많은 대형병원이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여가부, 직장내 성차별 점검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017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역별 정책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에서 받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호스피스 의료기관별 병동 상세현황 자료를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16곳만이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로 따지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총병상 4만176개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은 뒤늦게 부랴부랴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017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역별 정책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인천·광주·전남·충북 등 지방자치단체 5곳이 참여한 모니터링단은 각 지역 공공기관중소기업을 찾아가 고용현장의 성차별 실태를 점검한다.

모니터링단은 고용 인사 승진 임금 등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스며든 성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직접적 명시적 성차별은 줄었지만 여직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시가폭 경조사 휴가만 인정하는 등 교묘한 방식의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연고 정신질환 입원자 2천 명 무더기 퇴원 우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퇴원시키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퇴원시키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업무가 전국에서 2000여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 법은 기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업무가 전국에서 2000여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 법은 기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원은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행려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환자의 입원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보호의무자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공공후견인을 지정한 후 동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법원 감독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살펴 기간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정신질환자는 2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후견을 맡을 인력 풀이 넉넉지 않은 데다, 후견인 환자의 상태를 살펴 입원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각 법원도 후견 업무를 맡는 판사 등 인력이 한정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병원·법원 '퇴원' 대란 오나?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게다가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동의 외에도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심사까지 받아야 해 절차를 끝내기에는 빠듯하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소위 행정입원 방식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병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법 시행 직전인 5월 29일 시행령을 고쳤다. 시행규칙은 법이 시행된 5월 30일에야 개정됐다.

나눌수록 행복해 집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 1. 봉사단 모집대상**
 - 1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나 동아리(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 1 베이비부머 봉사단 : 1955~19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월 2회 이상 활동 가능)
- 2. 봉사단 기준**
 - 1 5인 이상(VMS 가입)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4.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1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1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질 제고
 - 1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 전문성·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패러다임 구축
- 5. 봉사단 혜택**
 - 1 활동비(재료비 및 필요용품 구입비) 일부 지원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 1 봉사단체 홍보
- 6. 신청 및 문의**
 -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우 코디네이터
 - 전 화 043) 234-0840
 -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 영유아 박람회 유모차부대 '복직'

32개 기관 부모양육태도 검사 등 40여개 부스 운영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 가 지난 10일,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센터장 유숙현)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심의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표갑수 미래복지개발원장 등 복지 관련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모차를 끈 아빠, 엄마부터 손자 손녀를 대동하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주시 이승훈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 돕는 청주형 나눔공동

체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 맞이하는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는 32개 기관이 참여하여 아동발달 및 부모양육태도 검사, 병아리 만들기, 태고모형 전시, 아동권리, 국공교육, 이웃에 발견 캠페인, 마술공연 등 40여개 부스를 운영하여 영유아가족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인사들이 그네를 밀어



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행사관계자는 그네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지역사회가 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는 시민들에

게 영유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양육자들이 믿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영유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건강가정다문화센터 수용자가족캠프

동작 치료 등 가족관계 유지·회복 프로그램 진행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4일 청주여자교도소 내에 마련된 프로그램실에서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수용자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하였다.

수용자가족사랑캠프는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1년부터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수용자의 가족 관계 유지와 회복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출소 후 원활한 가족 관계를 회복하여 사회복귀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높은 효과성을 인정받아 현재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교도소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수용자가족사랑캠프는 오전에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의 수행생활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된 가족의 변화한 역할을 이

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동작 치료 및 가족 단체 활동을 하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친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박미영 센터장은 수용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용자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기억과 영향력을 통해 출소 후에도 가족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니어클럽 노인 전문가 양성

노인돌봄이 활동 노인 대상 수료식 열고 수료증 전달

청주시니어클럽(관장 박현주)에서는 12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독거노인의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식을 통해 제 4기 노인 전문가들을 양성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노노케어 노인돌봄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29명의 노인전문가 양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5명의 노인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노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수료증 증정과 개근 및 정근상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하공연으로 춤과 민요의 한마당 팀의

경기민요와 강원민요 열창과 아름다운 고전무용인 교방무도 함께 선보여 수료식을 빛내주었다.

이에 수료증과 개근상을 수여받은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뜻 깊은 상을 받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고, 본인뿐만 아니라 직접 돌볼 수 있는 노인들에게 적용하여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이었으며, 이번 기회를 제공해준 청주시니어클럽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감을 밝혔

실종·유괴예방 인형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관장 이영균)에서는 아동들이 실종 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종 유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종 유괴 예방 인형극은 청주시 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인형극이 끝난 후 율동과 함께 미아 예방, 유괴예방 노래를 배워봄으로써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종 유괴 예방 인형극 신청은 청주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childfund-cheongju.or.kr) 또는 전화(☎253-4493)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익활동사업 활동교육

공익활동사업(경로당도우미(144명), 공공복지시설도우미(85명), 지역아동연계(53명)) 활동교육이 13일~15일 무극종합복지관 2층에서 진행되었다.

경로당도우미사업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청소도구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공복지시설도우미사업과 지역아동연계사업은 노인, 안구구조증을 예방하는 건강체조와 여름철 건강관리를 주제로 교육하였다.

활동교육 참여자 전원은 이날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서명에 동참하였다.

목장길 따라 시골풍경 구경 '꿀잼'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등 4곳 경기도 여주 은아목장 탐방 트랙터 타기 말밥주기 체험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에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꿀잼(꿀 같은 재미)프로젝트 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제천시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4기관의 꿀잼인 이용자들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은아목장으로 지역 사회탐방을 떠났다.

목장길을 따라 시골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랙터 타기, 염마젓소 젓짜기, 어린송아지 우유주기, 여름 들기, 말밥주기, 밀크아이스크림 만들기, 피자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목장체험에 참여한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최모씨는 트랙터도 타고, 피자도 만들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사회통합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효사랑음악회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산남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종빈)은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5월 29일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의 예술 문화 기회 마련을 위해 효사랑음악회를 진행하였다.

효사랑음악회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문화나눔사업 2017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은 2006년 창단된 클래식 음악공연단체 <꿈꾸는 예술>이 동요,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편곡한 아빠의 청춘 외 15곡의 노래를 유쾌, 통쾌, 상쾌한 파워 클래식 성악창법으로 노래하며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이용자, 지역 주민들은 동요를 통해 어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지역주민과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남부3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외지역 학교 방문 홍보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은 남부 3군 보은, 옥천, 영동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월 각 군별 소외지역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월 보은 내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8월 영동 황간초등학교, 9월 옥천 청산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소외지역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을 통해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아동들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전시 및 관람, 아동권리 놀이 체험,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전달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상담 치료에 관한 활동과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옥천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731-3685)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 112를 통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기관 사례 발표

15일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장 이수현)는 사회복지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사례발표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청주행복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청주시 구청 및 43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공공사례관리자, 청주시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실시됐다.

사례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들과 민간우수협력사례, 공공우수협력사례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공공우수협력사례의 경우 강서1동 주민센터(고은정 주사)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자원공유 프로그램 행복 사다리 타기 시간을 통해 사례관리 수행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공개사례발표회를 통해 사례관리 공동이행 증진 및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복권기금 솔루션통합사례회의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5월 29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2017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솔루션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솔루션통합사례회의는 심리정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육시설에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상담전문가와 관련 학계 교수,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솔루션위원의 견해와 자문을 얻는 통합사례회의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총 4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솔루션통합사례회의는 심리정서지원사업 담당자와 아동들을 직접 양육하는 주요양육자들이 함께 했으며, 솔루션위원 위촉장 전달식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또 솔루션통합사례회의 후 심리정서지원사업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선정 아동 진행사항 보고와 향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중심리, 정서, 인지, 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맞춤형 문제행동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행동개선과 심리 정서적 회복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관리 지침교육

충북 시설종사자 700명 참여

충북도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종사자 보호전문기관의 정은경 관장과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선미 관장,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신용택 이사장, 교남소망의집 이용용 팀장이 각각 교육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 내용과 회계청렴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인사노무교육은 노무법인 화원의 정구원, 오은진 노무사가 강의했으며 회계교육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은경 관장과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선미 관장,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신용택 이사장, 교남소망의집 이용용 팀장이 각각 교육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외된 우리 이웃 저임에
SSN 좋은이웃들

따뜻한 눈길과 작은 손길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계시면
1688-7934로
연락주세요!

좋은이웃들 홍보대사
명승진 설수진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롯데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역할과 과제

□ 개정취지 및 배경

○ 개정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변화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반법이며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정책,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절차, 민간의 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법규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공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남게 됨
- 사회복지사업은 대다수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복지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성격변화가 불가피함
- 민간부문 지원체계 필요
- 민간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약되고 민·관 협력은 형식적이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민간의 협·조정기능에 대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조직체로의 변화를 통해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취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화함

·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및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 복지 현장에서 공공영역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확대하고,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1. 개정취지
○ 복지 현장에서 공공영역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확대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민·관 협력체계의 가교역할, 복지사각지대해소, 민간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협·조정,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업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과 시·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설립으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설립으로 하고 있음
○ 2017년 총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151개 설치되어 있음(설치율 68%)

3. 사회복지협의회 성격
○ 국가적 사회복지사업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는 국가의 사회복지가 전무한 시설에 사회복지사단체인 연락 및 협·조정을 행할 목적으로 1952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출발한 민간단체임
- 당시의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사실상 현재의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육성하고 수행하였기에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

○ 법정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이라는 국가의 업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게 부여함

- 법정단체화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히 민간사회복지사업자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고 육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음

- 따라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모인 민간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단위에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타 민간기관과의 행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4.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필요성
○ 민간복지전달체계 체계화
- 국가복지의 발달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민간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생, 서비스중복, 경쟁심화 등의 문제점 야기되고 있음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여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민간대표기관이 협·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민간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애로점이 있음

- 각 시·군·구 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민간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적합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호 보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해소
- 공공전달체계만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송파세모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민간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공공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복지사각지대해소의 문제는 공공이나 민간 단일체계로는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소외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민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야 함

○ 지역사회단위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용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개소당 2.2명임(2017년 6월)

- 현황을 기준으로 75개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면 고용은 16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 수행
일본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는 평균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 수행

● **평형시기: 약 4,200명, 일반기준: 22,272명의 새로운 고용창출효과 발생**

○ 지역사회와 민간자원 동원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국가가 사회복지에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나, 무한대로 증가할 수는 없으며, 민간도 전체 국가적 견지에서 지역의 사회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할 주체로서의 책임을 가지므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이웃사업을 통해 **부업대비 5.2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둠

좋은이웃사업에 국고는 1,064백만원(1)이 투입되어 취약계층 발굴(607백만원), 민간자원 연계지원(4,930백만원), 총 5,537백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금에 대응하는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민간자원 동원의 의욕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임의설치에 근거로 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성과이며, 의무설치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 현재의 현황에 비해 월등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는 국가와 함께 민간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음

-----종락-----

□ 사회복지사업자의 예산신청 및 결산보고 사무대행·지원

1. 개정취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투명한 시설 등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

○ 지도·감독의 한계
- 사회복지법인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속공무원의 수적 한계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담당공무원 1인이 100여개의 넘는 시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실정임

-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연료이나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사후처분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낮은 이해도
- 정부의 예산회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예산회계가 상이함
- 담당 공무원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적용되는 실정임

- 소규모 영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무회계규칙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처분을 받음

3. 개정 필요성

○ 사전적 지원으로 문제발생 소지를 낮춤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사회복지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법인 등의 예산과 결산에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도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1. 개정취지

○ 지역사회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현황

○ 현재 각 시·도와 시·군·구 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매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청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시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지역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역복지실행계획」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립하여 시행함**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84곳(54%), 실무협의체에 참여는 65곳(43%), 실무분과참여는 55곳(36%), 읍면동협의체 참여는 22곳(14%)임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민간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구원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음

민간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민·관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중복의 문제는 없음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체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사하는 회의체 기구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법정기구이며, 법인격을 가진 실천기구이므로 기능상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일부에서 중복의 문제를 제기하는 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 기능 중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 개정 필요성

○ 민·관 협력의 파트너로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견제시 필요

- 민관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 참여하고 있는 민간대표들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민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짐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을 대표하는 기구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 주체로서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견제시 필요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체 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현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를 위한 제형에서 머물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며, 지역의 민간사회복지를 대표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필요

- 지방자치의 고도화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환경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지역의 사회복지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각 시·도 및 시·군·구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을 대표하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민·관협력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각 시·군·구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분야의 민·관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음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조정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현행과 같음
신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서 정한 공동모금지원 매번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신설	5.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6.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결산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의 대행 또는 지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현행과 같음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아!

충북복지넷

- 복지서비스 검색
- 가까운 복지기관 찾기
- 복지기관 평가정보까지 한눈에

충북복지넷 www.043w.or.kr
검색창에 충북복지넷을 검색해보세요

특필기고

비군사적 대비와 호국보훈 정신 함양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보훈처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서의

전사자 모두가 안정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올해로 제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47번째 정부 기념일이며, 6월 6일 현충일과 6.25전쟁에 이은 3번째 호국 관련 정부 기념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안보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하여 비군사적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호국이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보훈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연간 50억 원 투입되는 데 비해 이스라엘은 9000억 원이며 이를 인구비례로 보면 4조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보훈선진국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제인식과 국민들 간의 단합 등 비군사적 대비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선진된 보훈정책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군사적 대비는 국방부에서 한다면, 비군사적 대비 강화 방안은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년간 500만 명을 나

사랑교육을 실시해 호국보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2005년 한국전쟁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 전쟁 시 북한편 들끓다가 66%였으나, 2016년 나라사랑의식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북간판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마감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이 있고 동맹국에 의한 안보보장을 받는 국가는 동맹해체 시 패망하는 것을 월남(주월미군철수)사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 월남의 경우 비군사적 대비가 실패하고 동맹 해체 후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했습니다. 반대로 서독의 경우는 비군사적 대비에 성공했고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독을 변화시켰고 평화적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서독보다는 과거 월남처럼 비군사적 대비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72년 분단국가로 주변 4강과의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신뢰 있는 지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과 보훈선양사업강화와 동시에 비군사적 대비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건강상식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중요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없이 대한민국의 큰일이 있었던 2017년 상반기였습니다. 앞으로 몸도 마음도 덜 지쳤으면 하는 바람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겠지요.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신보건영역에도 커다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이라 부르던 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1998년 4월 전부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된 후 2015년까지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되어 왔다가 2016년 이듬까지 바뀌고 전부 개정이 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법의 개정 목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둘째,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늘 안타까웠던 점은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볼 것인가? 장애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정책의 방향이 한 곳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장애인 아들이 차별적 시선이 있음을 묻소 느낀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살 만한 게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표준작업장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령이 많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물품구매 총액의 1% 이상 의무적 구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제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인증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산품은 장애인 만들지만 제품에는 절대 장애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다. 최근 신문지상에 장애인 아들이 차별적 시선이 있음을 묻소 느낀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살 만한 게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표준작업장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령이 많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물품구매 총액의 1% 이상 의무적 구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장애인들은 그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이라고 감히 제언 드리고 싶다.

특필기고



왕인열
충북북부보훈지청

아름의 계절 유월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6월은 6.25전쟁이라는 커다란 아픔의 기억을 우리에게 준다. 6월이면 우리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는 현화 분향 후 소리

없이 오열하는 전사자 유족들로 슬픔을 더 하고 있다. 전사소식에 멎든 가슴을 안고 살고 있는 유족, 전쟁터에서 부상 당한 몸으로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상이군경, 없었으면 좋았을 6.25전쟁이 만들어 낸 슬픈 일이다. 6월의 진혼나팔 소리는 해마다 전국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지만 조국수호를 위하여 젊은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파란 잔디밭에 고이 잠든 영령들은 저 나팔 소리를 듣는지 아는지.

6.25전쟁은 우리에게 전사자 178,569명, 부상 555,022명, 실종 28,611명, 피난민 240만명, 전쟁미망인 2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등의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그 당시 기준으로 22억8천만 달러 규모의 시설피해가 있었다. 3년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주었고 57년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자존을 가름하는 숭한 외침과 시련을 겪어왔으나, 그때마다 선열들은 승기와 지력을 발휘해 호국의지와 애국정신으로 우리의 민족사를 면면히 이어왔다. 세계사의 무대에 명멸했던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처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일년 365일 어느 하루인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을까만, 우리 민족에게 대할 수 없는 아픔과

비극을 안겨준 6월이 오면, 풍전등화의 나라를 지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국민 된 도리로 여겨왔다. 그러나 갈수록 타인과 국가공공체제를 위한 희생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약해지고,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진국일수록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애국지사들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이 제자리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민의 가치관도 사회 정의도 바로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나라 위한 헌신이 진정 명예로운 것이 될 때 나라의 장래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훈은 국민 된 책무인 것이다.

보훈은 만년대계(萬年大計)라 했다. 부강한 국가에는 뿌리 깊은 보훈정신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독립 호국 민주정의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 역시 준비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의 발전된 조국이 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보훈(國家報勳)은 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꽃피울 수 있다.

6월과 6.25전쟁 67주년

장애인 꿈·희망 안고 달려요



김석부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충청북도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22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여기에는 근로 장애인 760여명, 종사자160여명 등 920여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경쟁

고용에 있어서 제한된 잠재력을 지닌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장기고용을 제공하는 하나의 재활 기관이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의존 수준을 줄이고 자신의 생산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는데 지원기능을 쉽게 말하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유통 판매 하는 총판장, 백화점,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충청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지난 2003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하여 공동리 총공공판장 이름으로 청주시

우암동에서 개장되어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1층에 사무실과 창고를 얻어 원장 이하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시설에서는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정성으로 만든 행정사무용품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20여가지의 생산품을 주문받아 매일 배송하고 있으며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도 공공기관의 배려와 관심속에 40억원 이상의 판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과 우리 판매시설의 매출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수혜가 많고 적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접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보는 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중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1층에 사무실과 창고를 얻어 원장 이하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시설에서는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정성으로 만든 행정사무용품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20여가지의 생산품을 주문받아 매일 배송하고 있으며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도 공공기관의 배려와 관심속에 40억원 이상의 판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과 우리 판매시설의 매출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수혜가 많고 적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

장애인이 만들지만 제품에는 절대 장애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다.

최근 신문지상에 장애인 아들이 차별적 시선이 있음을 묻소 느낀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살 만한 게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표준작업장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령이 많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물품구매 총액의 1% 이상 의무적 구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제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인증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산품은 장애인 만들지만 제품에는 절대 장애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하고 싶다.

최근 신문지상에 장애인 아들이 차별적 시선이 있음을 묻소 느낀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고 특별히 살 만한 게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표준작업장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령이 많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관별 물품구매 총액의 1% 이상 의무적 구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 안내

법률출타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호신청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출타제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딸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후순위 상속권자 상속포기

Q.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다...

A. 먼저 상속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자신들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복지정보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 요청

가. 행사 개요
행사명: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일시: 9.7(목) 11:00
장소: 63city 그랜드볼룸(예정)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자: 사회복지 관련자 1,000명

* 추진위원
1.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소지자
2.사회복지사 경력 7년이상 중간관리자
3.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유(有) 경험자
* 참여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필수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 중이내사항을 만족하는 기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7월 도민교육과정

- 생활원예과정 - 교육기간: 7.4(화)
교육대상: 희망도민 (30명)
교육장소: 도민교육관 제1강의실
교육내용: 화초 잘 키우는 법, 테라리움 만들기 실습
제5기 실버문화과정(단양군) - 교육기간: 7.6(목)
교육대상: 65세이상 어르신 (100명)
교육장소:
교육내용: 행복한 노후생활,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 등
행복한 가정 만들기과정 - 교육기간: 7.11(화)
교육대상: 희망도민 (40명)
교육장소: 도민교육관 제1강의실
교육내용: 행복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부부 행복을 위한 생활과 대화 방법,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바르게살기위원 역량강화과정

[서울NPO지원센터]인권출세기금 지원사업

지원요건
1. 인권 관련 주제, 주제, 방식에서 참신한 요소가 있는 사업
2.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업과 인권, 도시와 인권, 개발과 인권, 인권교육 및 문화 등 재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3. 사회적으로 인권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업
4. 전체 사업규모가 1천 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
5. 7.24(월)부터 최소 3~6개월 이내에 사업 수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기타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사업수행 가능)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개인 및 모임
지원내용: 최대 1백만 원 지원(사업지원비)
접수방식
1. 기간: 6.22(목)~7.12(수) 16:00까지
2. 방법: 지원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 접수(수신메일: khrf99@gmail.com)
문의 접수: 한국인권재단 안선희 간사 (전화: 02-363-0002 또는 070-4012-0442)

[KT&G복지재단] 차량지원공모사업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승용차 지원
지원한도: 신청기관당 1대 한정 지원
신청 및 접수: 6.15~7.14
접수처: KT&G복지재단 사무국 차량지원담당
심사결과 및 통보일정: 2017년 8월말

[청주시청]2017년 청주시 무로법률상담실 운영

운영기간: 2017년 1월~12월
운영시간: 매일 두번째 주 월요일 (10:00~12:00/14:00~16:00)
상담방식: 일대일 대면상담
접수일시: 매일 1일 선착순 접수
상담내용:
- 시민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에 관한 법률상담
-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상담
-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
- 그 밖에 시민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문의: 043-201-1595

[충북여성재단] 젠더콘서트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

일시: 7.18(화) 13:00~15:30
장소: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상: 성평등 실현과 인문학, 삶에 대해 고민하는 누구나
신청: 이메일 신청(bwomen@naver.com)
문의: 충북여성재단 교육경영지원팀 (043-285-24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 정책 제안하기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제안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
정책제안 내용
-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제외,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 돌봄 영역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확대,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확대 배치 및 법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편잡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 (임금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준수, 정규직화 등)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실습기관 모니터링 추진위원회 및 참여기관 모집안내

사업명: 2017년 실습교육현장조사 및 컨설팅사업
모집기간: 6.28(수) ~ 7.7(금) 12시까지
선발확정: 7.12(수)
모집인원: 2명(추진위원) 8개소(참여기관)
제출방법: 양식 작성후 이메일(cbassw@hanmail.net) 발송
선발기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자원봉사자 모집

충북하나센터 정착도우미
관리센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3.01 ~ 8.31(월 2회)
전화번호: 043-238-0840

장애인가정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멘토 모집
관리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4.3-12.31
전화번호: 043-648-3337

수학교실 학습지도
관리센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3.7-12.29
전화번호: 043-856-1100

노리마을 장년감도서관 운영보조
관리센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3.10-6.30
전화번호: 043-237-8774

청소년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3.27-12.29
전화번호: 043-857-596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지역사회봉사단

L-ing, 문화클럽 공연티켓 배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 소속 L-ing(단장 김민희)는 5월 20일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희망의 문화클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티켓 배분활동을 진행했다.

L-ing는 희망의 문화클럽에서 초대된 사회복지기관 및 기업의 티켓을 수령한 후 명단의 대표자를 확인

되는 공연이나 만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라며 미소를 보였다. L-ing는 서원대학교 대학생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봉사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어디서든 Talk! Talk! 터진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Daily English

해외출장(공항편④)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을 자주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가이드가 동행하면 그냥 따라다니면 되지만 혼자 여행할 때 알아야 할 것들과 알아두면 편리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1. What's the pro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2. What's the natur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3. For study. 유학입니다.
4. For business. 사업차 방문입니다.
5. I'm here on vacation. 휴가차 왔습니다.
6. For sightseeing. 관광차 왔습니다.
7.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여기서 얼마나 체류하실 건가요?
8. For two weeks. 2주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9.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세관에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10. I have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11. How much money do you have with you? 돈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12. Where's the customs? 세관검사대는 어디입니까?
13. You damaged my luggage. 부주의로 가방이 파손되었습니다.
14. May I see your customs declaration, please. 세관신고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15. Smoking is prohibited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는 금연입니다.
16. Where's the carrousel to Korean Air flight 125? 대한항공 125편수화물 컨베이어는 어디입니까?
17. Please, help me to find my luggage. 내 짐을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18. What's in this?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9. It's a gift for my sister. 내 형제에게 줄 선물입니다.
20. These are for my personal use. 이것들은 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인생이모작"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연재되어 있습니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접속 - 사회공헌 - Daily English 클릭)

복 / 지 / 만 / 평

그림의 떡

이창신 www.bokmani.com



이제 그림의 떡 같은 정책은 고침시다.